

모든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평소에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 두고 해당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조회되는 경우 메모리로 복사한 후 메모리에 작업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일반적으로 버퍼(Buffer)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디스크 vs 메모리 처리속도를 비교하였을때 메모리에서의 처리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읽기속도와 쓰기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캐시는 '캐시'이 가가음.

오라클에서는 이때 사용하는 메모리를 Database Buffer Cache(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라고 합니다.

Database Buffer Cache라는 공간을 Tablespace(테이블스페이스)라는 논리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오라클에서의 작업은 평소에는 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에 내용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

메모리의 Tablespace라는 공간으로 해당 테이블을 복사해 놓고 작업합니다.